금호아시아나, 중국어 안되면 “끝”

중국투자 확대로 중국어 무장 독려 ... 무료 어학강좌 열어 집중교육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최근 대대적인 중국투자를 감행하면서 전 임직원에게 중국어 무장을 독려하고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최근 들어 금호타이어 등 핵심 계열사의 중국 및 한자 문화권 진출이 급증함에 따라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중국어 사내강사 초빙 및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승진에 한자능력을 반영하고 있다.

박삼구 그룹 회장이 고 박성용 명예회장의 뒤를 이어 한중우호협회 회장을 맡고 있고 대부분의 계열사가 중국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호아시아나는 3월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에 위치한 범화 컨트리클럽을 인수했으며, 금호고속은 2008년까지 중국에 자동차 1000대 보유 목표를 위해 뛰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7월께 중국 창춘의 타이어공장을 완공하고 5월에는 중국 난징에 2억2045만달러를 추가 투자하는 타이어공장 착공에 나서며, 금호석유화학은 중국 난징의 PO(Poropylene Oxide) 플랜트를 2008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중국어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금호아시아나는 신문로 본사 14층에 있는 한중우호협회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고 있다. 한중우호협회는 한-중 수교 직후인 1992년부터 금호아시아나의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중국어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다.

한중우호협회는 매일 오전 8시부터 1시간씩 사옥에서 중국어 기초와 회화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중국어 수요가 늘고 있는 금호석유화학, 금호타이어, 금호렌터카, 금호생명, 금호P&B화학 등 다양한 계열사 직원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금호아시아나 신입사원은 입사 때 반드시 한자시험을 치루어야 한다. 응시생들은 모두 1차 면접과 함께 한자시험을 치르고 한자시험은 3급 수준으로 주객관식이 섞여 출제된다.

또한 승급과 인사고과를 위해서도 연간 1회 실시하는 한자시험에 응시해야 하며, 목표수준 미달인 사원은 재시험에 응시해 합격점수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금호아시아나 인재개발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어학 강좌(E-Learning)에도 중국어 초급회화부터 고급과정까지의 강좌 30여개가 개설돼 계열사 직원들은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다.

금호타이어는 중국에 파견이 예정된 인원에 대해 외부 학원비 및 어학시험 비용 등의 학습비용도 부담해주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4/17>